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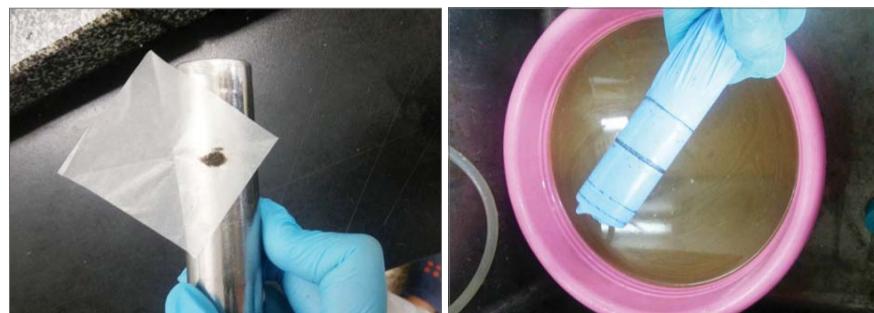
분말·환 식품기준치 3배 초과

계피·코코아가루 ‘쇳가루 범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제품 금속성 이물검사

총 44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경기도내 유통된 농산물 가공제품에서 검출된 기 경기도보건호나경연구원이 검체에서 금속성이물을 분리하는 시험과정. /경기도

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mg/kg 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 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

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축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광주시,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운영
원비 부담 줄고 공공성 확보 기대

광주시교육청.

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운영 협의, 사전 컨설팅, 업무협력 약정체결, 법인 전환 신청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출범해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 교육청은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교육정보원 소강당에서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교육청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건학이념과 특색은 살리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교육력 제고뿐 아니라 학부모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대회’ 31일 개막

경기·인천·강원 DMZ 접경지역서

가한다.

세계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인 네이션스 컵(N-CUP)으로 개최되며 세계 1~25위 국가가 출전 자격을 갖는다.

마스터즈 대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 까지 강화~화천 250km 구간에서 펼쳐지며 국제청소년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한 후 강원도에서 화천까지 달리게 된다.

대한자전거연맹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즈 대회에는 30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한다.

연천 자전거 투어는 일반 자전거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일 연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임진강 주상절리 등 연천지역 명소를 순환하는 62km 코스를 달린다.

연천 자전거 투어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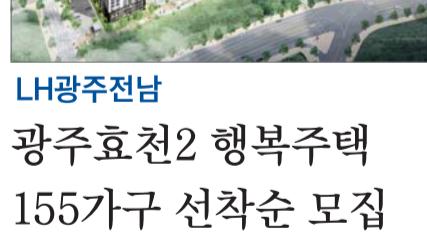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31일 인천 강화도 순환코스를 출발해 경기 김포·연천과 강원 화천·인제를 거쳐 다음 달 4일 강원 고성에 도착하는 475km 코스로 열린다.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31일 인천 강화도 순환코스를 출발해 경기 김포·연천과 강원 화천·인제를 거쳐 다음 달 4일 강원 고성에 도착하는 475km 코스로 열린다.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오는 31일 인천 강화도 순환코스를 출발해 경기 김포·연천과 강원 화천·인제를 거쳐 다음 달 4일 강원 고성에 도착하는 475km 코스로 열린다.

국내·외 25개 팀 150여 명의 선수가 참



LH광주전남

광주효천2 행복주택

155가구 선착순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노성화)는 광주효천2 행복주택(7단지) 155가구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전용 26m² 40호, 36m² 115호 등 총 155가구로, 26m²의 경우 주거약자형 9호와 일반형 31호를 따로 모집하며 주거약자형은 고령자만, 일반형은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36m²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에 대해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계약은 다음 달 6~7일 양일간

에 걸쳐 진행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휴가지 인근 불법 숙박·식당 무더기 적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영업 등 69곳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북면, 양주시 장흥면, 양평군 용문면,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인기 여름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 음식점 20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소독, 환기 등의 위생 준수의무가 없어 광고 사진과 실제 시설의 위생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 미비로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다수가 유명 소셜 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

양주시 장흥면 소재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 소재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거나 곰팡이가 판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 및 음식점 업자를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한농연 담양군연합회 농업경영인 대회 ‘성료’ 제17회 (사)한농연 담양군연합회 농업경영인 대회가 지난 8일 농업경영인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군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한국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가 주최하고 담양군 등 관계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과 농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영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담양군



인천시가 지난 8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시

“불법촬영은 범죄…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

인천시 ‘화장실 몰카 점검·캠페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화장실내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광역시, 인천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여성권익시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봉사자(안전모니터 봉사단, 폴리스 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설치 가능

성이 높은 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정부 공통메시지 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몰래카메라는 설치되면 반드시 단속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시·군·구 별로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벌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